

# 나주 강소특구 2025년까지 50개 연구소 기업 설립

### 市·한전 등 3년차 성과 공유회

### 3130개 일자리 창출 목표

### 555개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올해 3년 차를 맞은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오는 2025년까지 50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며 '에너지 수도 나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나주시와 한국전력 상생생태계조성처 등은 최근 나주 혁신산업단지 내에 있는 한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강소특구 사업 성과 공유 및 2023년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합 지역 혁신기관 관계자와 특구 입주 기업 대표 16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0년 8월 과학기술통신부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와 나주 혁신산단 일원 1.43㎢(143ha)를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이하 강소특구)로 지정했다.

강소특구는 지역에 있는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한전)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 육성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16억원을 투입해 기술핵심기관인 한전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강소형 창업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 강소 특구를 내걸고 지능형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기술 분야를 특화하고 있다.

강소특구는 기술사업화 핵심지구인 혁신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앞줄 오른쪽 네번째)와 한국전력 등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주체 관계자들이 최근 한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성과공유·사업 설명회'를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0.5km)와 기술창업 지구인 한전과 에너지기술연구원(0.26km), 기술생태계 순환지구인 나주 혁신산단(0.93km) 등으로 나뉜다.

지난 2년간 강소특구에는 연구소 기업 15곳이 설립되고 첨단기술기업 2개소, 강소형 창업기업 31개소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구 지정 이후로 입주 기업은 233개사에서 307개사로, 30%가량 증가했다.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ICT·SW) 부문 기업이 91개사(30%)로 가장 많고, 전력기자재 67개(22%), 신재생 운전·보수(O&M) 43개사(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기준 특구 입주 기업들의 연 매출액은 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0개 기업이

창업하는 등 신규 창업 기업은 모두 31개사로 늘어났다. 지난 한 해 142명을 포함해 21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모두 61건(지난해 21건)의 기술이전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특구 기업들이 전력연구원과 한전 KDN 등 산·학·연 9개 기관이 보유한 555여 개 장비 사용을 신청했으며, 올해는 공공기관 장비 개방 대상을 900여 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소특구사업단은 사업 3년 차를 맞아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글로벌 스타기업'을 키워내는 데 힘을 쏟는다.

에너지 특화 분야 중심으로 기술이전·출자를 강화하고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5년까지 50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31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지속가능한 기술 사업화를 통한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555개 연구 장비 공동 활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강소특구 주요사업 실적과 전남나주 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칼선'의 지역특성화육성사업 우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첨단기술 2호 기업인 ㈜엘시스는 기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한전의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확장에 중점적류(MVDC) 실증 특례 첨단기술기업으로 등록하게 된 과정들을 공유했다.

나주시는 '에너지 수도 나주'의 연구 시설 기반을 소개하고 기업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이어 강소특구사업단의 '2023년 사업계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실증설비 및 공동 활용 장비 구축계획', 광주 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지자체-대학연계 에너지신산업 지원 사업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협력 R&D 발굴과제 소개' 등이 진행됐다.

김태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설명회에서 "강소특구 3년 차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유망기업 선정 및 집중지원, 공동연구과제 수요조사 확대, 에너지 분야 강소특구 네트워크, 기업커뮤니티 활성화 등 기업 역량을 강화에 초점을 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강소특구사업을 주축으로 관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기업 판로확보와 에너지산업 수요 공급을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jason@kwangju.co.kr】

## 전국 명품 춘란 한자리에 화순군 18~19일 난 전국대회



제29회 한국난 명품 전국대상 대상 홍화소심.

화순군이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한미문화스포트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30회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봄과 가을에 한국난 전시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전국대회를 더욱 품격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화순군이 주최하고 한국난문화협회와 화순난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춘란·풍란·석곡·한란·화귀란 등 1000점이 전시되고, 98점에 대상 등을 시상한다.

개막 전날인 17일 출품 접수와 심사하고 18일 오후 2시 개회식에서 우수작 시상이 이뤄진다. 전시회 관람은 무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군은 이번 전국 전시회를 통해 한국난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반려식물로 각광받도록 다양한 난 관련 체험행사도 마련한다.

또 행사장 한편에는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장성군 식량산업 발전 성공모델 만든다

### 농협통합RPC·CJ브리딩과 협약 원료곡 등 전략품종 계약재배 확대

장성군이 농산물 종자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전략 품종을 지역에 먼저 도입하며 납품 물량을 선점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농협통합RPC(마곡종합처리장), CJ브리딩과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실무협의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장성지역에는 CJ브리딩이 선정한 새로운 전략 품종이 우선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계약재배 면적도 점차 확대한다.

장성군은 지난 2019년 CJ브리딩과 업무협약을 맺고 가공용 원료곡 전문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벌였다.

장성군은 CJ햇반에 들어가는 원료곡 품종을 도입했다. 연간 원료곡 계약 재배량은 1400t에 달한다. 현재 89농가가 250ha 규모로 재배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장성군은 계약 재배 단



김한중(가운데) 장성군수와 장성군농협통합RPC, CJ브리딩 관계자가 장성군청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장성군 제공>

지 조성하고 농정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을 펼친다. 산지 유통을 도맡고 있는 장성군농협통합RPC는 농업인 조직화와 규모화를 맡는다. CJ브리딩도 장성 농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 발굴에 힘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기후 변화와 쌀값 파동 등 작금의 농업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농업 소득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딸기 재배 농가로 구성된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팀 '갯뿔'이 사회적기업가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강진군 제공>

## 강진 딸기 농가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강진지역 딸기 재배 농가들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 창업팀'에 선정됐다.

딸기 농가들이 모여 만든 창업팀은 '갯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2500만원의 사업 비용을 지원받는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안을 갖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창업 공간과 창업 자금,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갯뿔'은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안에서 활동하는 강진딸기연구회 회원 가운데 사회적기업 경영에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꾸려졌다.

사회적기업 경영을 위한 교육와 상담을 받고, 강진 딸기 브랜드화와 다양한 딸기 제품 생산·제조·판매, 딸기 체험 활동 등 공동 소득 증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담양군 친환경 미생물 가격 이달부터 1당 100원 인하

담양군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부터 친환경 미생물 공급 가격을 1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담양군 친환경미생물센터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멸균 배양기 7대 등 배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공급하는 미생물은 광합성균, 고초균2,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 BT균 등 모두 7종이다.

친환경 미생물은 작물 생육을 돕고 병해충을 막는 효과가 있다. 가축 면역력을 높이고 축산농가 약취를 줄여준다. 축사 약취 유발 물질 가운데 하나인 암모니아는 65%, 황화수소는 42%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